

#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

## 육천 년 전 인간의 '나라는 의식'은 하나님의 영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도처에 우담화가 피고 있습니다. 불경에는 석가모니가 죽은 지 3007년 만에 이 세상에 생미륵불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생미륵불이 오시게 되면 우담화가 핀다. 삼천 년 만에 한 번씩 피는 우담화가 바로 생미륵불이 오면 핀다'고 이렇게 불경에 뚜렷하게 써여 있습니다.

석가모니 선생이 말하기를, "이제 나는 반쪽 글자를 여러분한테 가르쳤지만 앞으로 생미륵불이 오시면 완전한 글자를 가르쳐 준다. 나는 이제 성불하지 못했지만 바로 생미륵불은 완전히 성불한 자요, 그 생미륵불은 감로를 내리는데 그 감로가 사람 털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감로를 받은 사람들이 죽지를 않는다"고 불경에 써여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26장19절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 주리라"라고 써여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이슬이 내리면 안 죽는다는 거지요. 죽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신이 되는 마귀가 태초에, 바로 육천 년 전에 아담과 해와 하나님을 점령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마귀에게 점령되기 전에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었으나 마귀가 침투해 들어와서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 속의 나라는 의식인 하나님의 영을 마귀의 육체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마귀가 나라는 의식의 자리에 앉은 순간 바로 아담 하나님은 남자 사람이 되고 해와 하나님은 여자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이라는 것은 흙을 빚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과인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

에 침투해 들어와서 점령하는 순간, 바로 인간으로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천 년 전에 인간으로 변한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 하나님을 도로 찾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감로이슬성신을 만드는 데 시간이 육천 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 이슬성신만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구세주를 키웠던 것입니다.

###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름의 다섯번째 아들인 단을 통하여, 그대로 그 핏줄기를 통하여 육천 년간을 구세주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천 년 만에 바로 구세주가 나타나서 오늘날 이제 그대로 이 소사 땅에 천지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구세주를 만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구세주를 만나도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생각을 돌리다가 결국은 마귀의 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귀의 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돌리면 안 되겠지요. 인간의 생각을 돌리면 마귀 발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의 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세주의 말씀을 육비에 새겨서, 구세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합니다. 구세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될까,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의 피로 연합합니다. 하나님



구세주 호희성님

의 피로 변하면 바로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은 영과 육이 함께 영생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고로 인간 속에 있는 마귀인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여버서, 구세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합니다. 구세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될까,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의 피로 연합합니다. 하나님

의 피로 변하면 바로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자만이 이 길을 가는 거지 승리자가 아니면 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나를 이겨야, 자신 속에 있는 주체영이 되는 나를 이겨야,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바로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바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 미완성자는 결국 죽고, 죽으면

### 누구나 지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승리한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바로 믿음이요, 바로 생명과일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영생이 이루어지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바로 승리의 하나님의 영인 생명과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 구세주가 생명과일입니다. 승리자 구세주가 생명과일인지도 모르고 초초로 바라보라고 했는데 초초로 바라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인간으로서 있다가 인간으로서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것

이슬입니다. 죽으면 지옥이예요. 아시겠어요?

죽을 때에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고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 생명이 죽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죽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꽃나무도 살아 있고 저기 있는 꽃나무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꽃이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에 나무가 살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신이 없다면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곧 생명인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죽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도 개미가 거어지면 경총 뛰어서 건너갔습니다. 개미를 밟을까봐 밟으면 개미가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개미도 밟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명을 귀중하게 다루어야 돼, 생명을 천하게 다루어야 돼? 귀중하게 다루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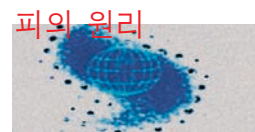
###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라고 그랬죠?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는 말씀이 성경에 써여 있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라고 성경에 써여 있는 고로 아무리 미운 것을 해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사람을 미워하면 곧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것을 하고, 아무리 못된 것을 해도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살인죄를 진 사람이 천당 갈 수 있어요? 천당 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살인죄만은 짓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죄를 짓는 고로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 못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가 가르쳐주시 못하고 있지만 우리 승리제단에서는 이제 못마땅한 마음이 살인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 모든 문제는 내 안에

## 해답을 밖에서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사고방식

우리는 모든 삶의 초점이 밖으로만 향해 내달리고 있다. 정작 외부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행복이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낳는다. 삶의 무의미, 고독감, 정신분열, 공허감, 폭력성 등 점점 비인간성화 되어가는 현실을 보면 그 폐해를 잘 알 수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가슴 찡한 예화가 있다.

### 집안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밖에서 찾고 있는 예화의 교훈

어떤 할머니가 오두막집 앞에서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무엇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느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잃어버린 바늘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기를 마친내 여러 사람이 물러와 그 할머니를 도와 바늘을 찾기 시작했다. 날이 점점 저물어 어두워지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할머니에게 물었다. "이렇게 넓은 데서 조그마한 바늘 하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걸 어디다 떨어뜨리셨는지 혹 모르세요?"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영, 집안에서 떨어뜨렸어!" 사람들이 어이없는 듯 외쳤다. "이런, 그렇게 대체 무슨 것이예요? 집안에도 떨어진 걸 왜 여기서 찾는단 말예요?"

할머니가 말하기를, "여기가 밝기 때문이지, 집안은 어두워." 한 사람이 물었다. "이런, 아무리 밝아도 그렇지, 여기서 잃은 적도 없는 바늘을 어떻게 찾는단 말예요? 집안에도 불을 밝히고 찾으면 되잖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하기를, "아주 똑똑한 양반들이구면, 작은 일에는 말이지, 근데 그대를 내적 삶에서 사는 어떨던가? 죄다 바깥에서만 찾지 않던가? 그대들이 찾는 그것들이란 안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던가? 거기서들 잃어버렸는가?"

위의 예화는 인간의 문제와 그 해답은 인간 내면에 모두 있음을 기발하게 암시해 준다. 정말 그렇다! 인간의 내면은 보화(행복)가 감추어진 산과 같다. 바위와 흙을 걷어내면 보화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가 차게도 인간은 바위와 흙을 치우기 힘들다고 그 위에서 쉽게 과실만 따먹고 있다.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인간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헤매고 있는가를, 모두들 '나'를 떠나서 줄곧 바깥에서 찾아 헤매고 있지 않는가? 돈에서, 물질에서, 대상에서, 초월적 신에서, 이데올로기의 허상에서.

우매한 인간은 행복이라는 것이 기성복과 같아서 외부에서 만들어져 입혀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마치 그것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집 바깥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자신 속에 있고, 자신 속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바깥의 대상을 끌어들이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꼭 혹을 때려 고하다가 혹 하나를 더 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깥의 대상물들은 이내 식상하고 공허하여 인간을 더욱 더 고독감과 허전함으로 또 다른 욕망의 불을 태운다. 우리는 이에서 하나의 진실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눈은 내면에 감추어진 보화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외부의 온갖 화려한 대상에만 눈이 팔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쁘게도 우리들은 인간의 내면에 찬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 보화를 깨내는 지혜와 실천적 방법을 드러내고 있는 시대에 도달했다. 즉 자신의 내면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와 답이 동시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의 하나하나를 찾아 제거하고 그 찬란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는 참 지혜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 안의 행복의 보화를 발견해내는 자신의 변화, 이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자신의 변화, 즉 자신 속의 걸림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성인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게 된다. 예수를 만나고, 공자를 만나고,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석가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실체를 밝혀 들어가다 보면 훌륭한 위인과 위대한 성인을 인종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 만나볼 수 있게 되고, 그분들도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상당히 깊은 의식 세계에까지 도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비록 완전히 인간의 본성과 합일된 경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지에 다다랐음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그분들은 우리 인간이 나아갈 정도와 지표가 어느 정도 발견해서 우리에게 큰 빛이 되어주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비록 완전한 인간, 이룸하여 신이라 불리는 그 완성의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이런저런 보이는 그 피안의 세계에서는 속세의 모든 고통과 번뇌와 생로병사까지 해탈하여 천국, 극락, 무릉도원, 유토피아의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비록 과거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올랐던 그분들이 완전한 그 세계로의 안내의 지혜가 부족하였지만,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음을 보여 준 것은 위대한

발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불행의 근원인 생로병사를 극복하고 영원한 천국(극락)에 사는 온전한 진리를 발견해내지 못했음은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바다. 오늘날 여전히 인류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함께하고 있음이 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지금까지 온전한 진리가 없었다

이런 까닭에 지금까지 우리에게서 참진리, 온전한 진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단순히 물리학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이었을 뿐이며, 철학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에 불과했다. 종교 또한 진정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의 우상"을 믿었다. 예술은 또 어떠한가? 예술 역시 미완의 미(美)로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을 불안정한 예술을 표현했을 뿐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생각을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표현한 "불완전한 인간학"을 밖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찍이 장자가 이렇게 심오하게 통찰한 바 있다. "무릇 진인(眞人)만이 진지(眞知)를 가질 수 있다(夫有眞人而後有眞知)."

사람은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보게 되어 있다. 우리 인류 앞에 산적해 있는 총체적인 난제는 바로 인류의 지적 영역 한계가 어느 만큼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진리가 이미 나왔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불행과 고통과 죽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진리의 세계는 모르는 것이 없고 해결되지 못할 난제가 없어야 하며, 이 땅위에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비로소 이 땅위에 참 진리가 출현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모든 학문과 종교가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서 인간과 우주 만물의 실존을 밝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피의 원리"로서 통쾌하게 풀 수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 원리는 바로 이 땅위에 진인, 완성자가 가지고 나온 참 진리의 학문이자 진정한 종교(宗敎)의 근본이 된다. 피의 원리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것이다. 피의 원리는 살아 있는 인간에 대한 피상적인 얘기가 아닌 직접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